

사울 왕국과 블레셋의 정치적 관계 연구를 통한 사무엘상 10:5상 “גְּבֵעַת הָאֱלֹהִים”의 번역 제안

이궁재*

1. 들어가는 말

사무엘상 8-11장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 중 하나인 왕국 탄생에 관하여 보도하고 있다. 이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이 왕정이라는 낯선 정치 제도를 받아들인 몇 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옛 정치 제도였던 사사 제도의 부패(삼상 8:1-5상), 이스라엘 내부의 강력한 요구(삼상 8:5하)¹⁾ 그리고 본 논문의 주제와 연관되는 블레셋(삼상 9:16)과 암몬(삼상 11장)과 같은 외부 세력의 군사적 위협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사무엘상에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알트(A. Alt)가 언급한 것처럼, 이스라엘 왕국 탄생 직전인 기원전 12세기에 이스라엘 주변 강대국(이집트,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 그리고 히타이트)의 일시적 세력 공백은 이스라엘과 함께²⁾ 팔레스타인 지역의 에돔, 암몬 그리고 모압이 왕정 국가로 넘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³⁾ 또한 철기 문화와 결합된 농기구의 발

* Kirchliche Hochschule Wuppertal / Bethel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강사. stingpea@hotmail.com.

- 1) R. Kessler, *Sozialgeschichte des alten Israel. Eine Einführung* (Darmstadt: WBG, 2006), 79는 이와 같은 성경 진술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왕국 탄생에 강력한 내적 요인 중 하나였다고 주장하였다.
- 2) A. Alt, “Die Staatenbildung der Israeliten in Palästina”, A. Alt, *Kleine Schriften zur Geschichte des Volkes Israel*, Band II, 3. Aufl. (München: C. H. Beck, 1964), 1-7.
- 3) M. Noth, “Gott, König, Volk im Alten Testament. Eine methodologische Auseinandersetzung mit einer gegenwärtigen Forschungsrichtung”, M. Noth, *Gesammelte Studien zum Alten Testament*, 3. Aufl., TB 6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66), 209는 이들 국가들 중 이스라

전(삼상 13:19-21), 농경지의 확대 및 경작지 중심의 인구 증가⁴⁾를 통한 팔레스타인 지역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도 이스라엘 왕국 탄생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제 구조 발전은 이미 사사 시대에(삿 5:9, 10; 10:4; 12:9, 14)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경제적 부와 군사력도 소유한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⁵⁾을 야기했기 때문이다. 사무엘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유력한’ 가문으로 소개되는 이스라엘 최초의 왕 사울이다(삼상 9:1). ‘유력한’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깁보르(גִּבּוֹר)’는 특별히 용맹한 전쟁 용사(삼상 2:4; 14:52; 17:51) 또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인물(룻 2:1)과 같이 영향력 있는 인물을 설명할 때 사용되었다.⁶⁾ 이러한 이유에서 베들레헴 성읍 장로 이새(삼상 16:4)의 아들 다윗 역시 ‘유력한’ 인물로 묘사한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삼상 16:18). 이를 이어지는 다윗-골리앗 이야기(삼상 17장)와 연관시켜 본다면 다윗의 용맹성에 초점을 두고 그를 유력한 인물로 묘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⁷⁾

이와 같이 사무엘상 초반부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 이스라엘 왕국 탄생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본 연구의 본문이 되는 사무엘상 10:5는 사무엘에 의해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선택받는 3가지 에피소드(삼상 9-11장) 중 첫 번째에 해당하는 본문(삼상 9:1-10:16)에 속한 구절이다. 이 구절에 대한 『개역개정』의 번역은 다음과 같다.

엘에서 가장 늦게 왕정이 탄생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A. Berlejung, “Geschichte und Religionsgeschichte des antiken Israel”, J. C. Gertz, hrsg., *Grundinformation Altes Testament. Eine Einführung in Literatur, Religion und Geschichte des Alten Testaments*, 3. Aufl.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9), 99-101과 C. Frevel, “Grundriss der Geschichte Israels”, E. Zenger, u. a., *Einleitung in das Alte Testament*, 8. Aufl., KStTh 1,1 (Stuttgart: Kohlhammer, 2012), 733의 주장도 참고하라.

- 4) 기원전 1200-1000년 사이에 에브라임과 유다 산지의 인구가 비약적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은 I. Finkelstein, “The Emergence of the Monarchy in Israel the Environmental and Socio-Economic Aspects”, *JSOT* 14:44 (1989), 53-63의 고고학적 증거로 확인된다. 그는 이 시기에 에브라임 산지 인구는 약 20,000명에서 55,000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G. Hentschel, *Saul. Schuld. Reue und Tragik eines Gesalbten*, *Biblische Gestalten* 7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2003), 21-22과 A. Berlejung, “Geschichte und Religionsgeschichte des antiken Israel”, 100을 참고하라.
- 5) H. C. Schmitt, *Arbeitsbuch zum Alten Testament. Grundzüge der Geschichte Israels und der alttestamentlichen Schriften*, 2. Aufl.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7), 29-30; S. Kreuzer, “»War Saul auch unter den Philistern?«. Die Anfänge des Königtums in Israel”, *ZAW* 113 (2001), 62.
- 6) H. Kosmala, “גִּבּוֹר”, G. J. Botterweck und H. Ringgen, hrsg., *ThWAT I* (Stuttgart: Kohlhammer, 1973), 909-911.
- 7) R. Kessler, *Sozialgeschichte des alten Israel*, 66.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니 그 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 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삼상 10:5).

본 연구의 목적은 구약에서 이곳에서만 언급되는 ‘하나님의 산’, 즉 ‘기브아트 하엘로힘(גִּבְעַת הָאֱלֹהִים)’에 대한 적합한 번역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영문’ 또는 ‘수비대’로 번역되는 블레셋의 ‘네찌브(נְצִיב)’가 이스라엘 영토 안 גִּבְעַת הָאֱלֹהִים에 머물렀다는 사실이 어떠한 정치적 의미를 내포하는지에 대하여 먼저 언급할 것이다. 이와 함께 블레셋이 사울 왕국 탄생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블레셋과 초기 사울 왕국의 정치적 역할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하여 논할 것이며, 이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גִּבְעַת הָאֱלֹהִים에 대한 번역 제안이 정치적, 신학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지녔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2. 본문

2.1. 블레셋 군사 위협과 사울 왕국 탄생의 연관성에 대한 의문점

블레셋은 기원전 1200년 후반부에 가나안 서부 해안가에 정착한 해양민족 중 하나이다. 이 민족의 기원에 대하여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⁸⁾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지속적으로 동부 요르단 산지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장시키려고 시도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사사 시대에 두 민족 간에 지속적인 전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삿 3:31; 10:7; 13:1), 사무엘서

8) 블레셋의 가나안 정착에 대한 최근 연구에 대하여는 L. Niesiolowski-Spano, *Goliath's Legacy. Philistines and Hebrews in Biblical Times* (Wiesbaden: Harrassowitz Verlag, 2016), 31-39를 참조할 수 있다. H. M. Niemann, “Nachbarn und Gegner, Konkurrenten und Verwandte Judas. Die Philister zwischen Geographie und Ökonomie, Geschichte und Theologie”, U. Hübner und E. A. Knauf, hrsg., *Kein Land für sich allein: Studien zum Kulturkontakt in Kanaan, Israel/Palästina und Ebirnäri für Manfred Weippert zum 65. Geburtstag*, OBO 186 (Freiburg: Universitätsverlag;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2), 69-91에서 블레셋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및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신학적 평가를 확인할 수 있다. I. Finkelstein, “The Philistines in the Bible: A Late-Monarchic Perspective”, *JSOT* 27:2 (2002), 131-167 역시 고고학 자료를 통한 블레셋 역사에 대하여 좋은 정보를 제공한다.

에서도 이스라엘 왕국 탄생 전후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벌어졌던 무력 충돌에 대한 다양한 진술(삼상 9:16)을 찾아볼 수 있다.⁹⁾

이와 같은 블레셋의 군사적 위협은 암몬(삼상 11장)의 군사적 위협과 함께 사울 왕국 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의견이 많았다. 그 중에서도 노트(M. Noth)¹⁰⁾와 도너(H. Donner)¹¹⁾는 블레셋의 군사 위협을 막아내기 위해서 한 지파 또는 인근 몇몇 지파의 동맹에 의존하는 사사 제도 보다는 중앙집권화된 권력 구조인 왕정 제도가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사울 왕국 탄생의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가 블레셋의 군사적 위협이라고 보았다.¹²⁾ 더 나아가서 군네벡(A. Gunneweg)¹³⁾은 사사기와 사무엘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속적인 블레셋의 군사적 위협이 이스라엘 사울 왕국 탄생의 유일한(“monokausal”)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삿 14-16장; 삼상 4장). 왜냐하면 그는 대사사와 같은 개인적 자질(카리스마)에만 의존한 지파 동맹만으로는 호전적인 블레셋의 침략을 방어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존재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¹⁴⁾

그러나 정말로 이러한 블레셋의 군사적 위협이 사울 왕국 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하여 회의적인 학자들도 분명 존재한다. 예를 들면, 노이(R. Neu)는 외부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왕국과 같은 중앙집권화된 군대 조직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였다. 그는 그 당시 이스라엘과 비교하여 군사적 우위를 확보했던 블레셋의 군대는 중앙집권화된 군대 조직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동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 왕정 탄생 이전 이스라엘의 사사 제도처럼 지파 동맹 중심의 정

9) C. Ehrlich, “Philister”, accessed 1 Mai 2019 from <https://www.bibelwissenschaft.de/>에 따르면 다윗이 블레셋 세력을 약화시킨 이후(삼하 8:1), 기원전 9세기부터 블레셋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H. M. Niemann, “Nachbarn und Gegner”, 82-83은 기원전 7세기에다 여전히 블레셋은 이스라엘 서쪽 지역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였다고 주장하였다.

10) M. Noth, *Geschichte Israels*, 10. Aufl.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6), 153.

11) H. Donner, *Geschichte des Volkes und seiner Nachbarn in Grundzügen. Teil 1: Von den Anfängen bis zur Staatenbildungszeit*, 3. Aufl., GAT 4/1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0), 197.

12) 이외에도 A. Alt, “Die Staatenbildung der Israeliten in Palästina”, 1-7; 존 브라이트, 『이스라엘 역사』, 박문재 역, 제3증보판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81), 248-252; H. J. Boecker, “Die Entstehung des Königtums”, H. J. Boecker, et al., *Altes Testament*, 5. Aufl. (Neukirchen-Vluyn: Neukirchner Verlag, 1996), 40-45; M. Metzger, *Grundriß der Geschichte Israels*, Neukirchner Studienbücher 2, 13. Aufl. (Neukirchen-Vluyn: Neukirchner Verlag, 2010), 82-86을 참고하라.

13) A. H. J. Gunneweg, *Geschichte Israels, Von den Anfängen bis Bar Kochba und von Theodor Herzl bis zur Gegenwart*, 6. Aufl., ThW 2 (Stuttgart: Kohlhammer, 1989), 59.

14) A. Alt, “Die Staatenbildung der Israeliten in Palästina”, 13-18.

치 제도였지만 군사적으로 주변 왕국에 우위를 점한 예를 제시하였다.¹⁵⁾

또한 베어레융(A. Berlejung)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왕국 탄생 이전 경제 구조의 변화 및 사회 계층 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같은 내부 요인이 이스라엘 왕국 탄생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지 외부의 군사적 위협이 요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주장하였다.¹⁶⁾ 또한 블레셋의 지속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인하여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군사적 긴장 관계는 분명 존재했지만, 사무엘상 13:19-21에서는 서로의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평화적인 공생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이스라엘은 철제 농기구를 수리하기 위해서 우수한 제철 기술을 소유한 블레셋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불해야 했지만, 이스라엘은 이들의 철제 농기구를 통해서 경작지 확대 및 농작물 수확량 증가와 같은 경제적 이익을 서로 얻을 수 있었다.¹⁷⁾

이러한 이유에서 앞에서 언급한 블레셋의 군사적 위협이 이스라엘 왕국 탄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알트, 노트 그리고 도너의 주장이나 더 나아가서 유일한 원인이라고 주장한 군네벡의 주장보다는 이스라엘 내부 상황의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들이 함께 작용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¹⁸⁾

2.2. 블레셋과 사울 왕국 사이의 정치 역학 관계의 변화

이와 함께 블레셋의 군사적 위협이 사울 왕국 탄생의 중요 요인이었다는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는 근거로 블레셋과 초기 사울 왕국의 정치적 역학 관계를 들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중요한 구약의 진술은 이스라엘 주요 도시인 므마스(삼상 13:23; 14:1)에 보통 ‘군대’ 또는 ‘영채’로 번역되는 ‘마짜브(מִצְבָּה)’, 즉, 블레셋의 군대가 이스라엘 영토 내에 주둔했다는 것이다.¹⁹⁾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사울 왕국 탄생 이후에도 이스라엘에 대한 블레셋의

15) R. Neu, “Die Entstehung des israelitischen Königtums im Lichte der Ethnosoziologie”, C. Sigrist und R. Neu, hrsg., *Die Entstehung des Königtums. Ethnologische Texte zum Alten Testament*, Band 2 (Neukirchen-Vluyn: Neukirchner Verlag, 1997), 15-16은 아프리카 누어족(Nuer)을 그 예로 들었다. 수단과 에티오피아 경계 지역에 거주했던 누어족은 이들 국가의 지속적인 군사적 위협 속에서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효과적으로 방어했다.

16) A. Berlejung, “Geschichte und Religionsgeschichte des antiken Israel”, 103.

17) S. Kreuzer, “Die Anfänge des Königtums in Israel”, 62-63; G. Hentschel, *Saul. Schuld. Reue und Tragik eines Gesalbten*, 68.

18) R. Kessler, *Sozialgeschichte des alten Israel*, 78.

19) 이외에도 에브라임 산지의 그일라(삼상 23:1)와 유다 산지의 벳산(삼상 31:10)에도 블레셋의 군대가 주둔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군사적 우위가²⁰⁾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²¹⁾

또한 게바(삼상 13:3)라는 도시에 블레셋의 ‘네찌브(נְצִיב)’²²⁾가 존재했다는 사실 역시 사울 왕국과 블레셋과의 정치적 역학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²³⁾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미 사무엘상 10:5 ‘하나님의 산’에도 머물렀던 ‘네찌브(נְצִיב)’는 군사 용어로 보통 국경 ‘수비대’ 또는 ‘영문’과 같은 군대를 의미한다.

본 구절에서 언급된 ‘게바’의 지정학적 위치에 대하여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이미 오래전인 1841년에 로빈슨(E. Robinson)은 게바와 ‘기브아’(현 지명으로는 Tell el-Fûl)는 동일 지명이라고 주장하였다.²⁴⁾ 앞

20) W. Dietrich, *David. Der Herrscher mit der Harfe*, Biblische Gestalten 14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2006), 146.

21) 이와 달리 E. Noort, “Philister”, H. D. Betz, et al., *RGG*, Band 6, 4. Aufl. (Tübingen: Mohr Siebeck, 2003), 1283은 일시적이지만 사울이 자신의 통치 초반부에는 블레셋에 대한 힘의 우위를 점유했다고 주장하였다.

22) P. M. Arnold, *Gibeah. The Search for a Biblical City*, JSOT.S 79 (Sheffield: JSOT Press, 1990), 147, 각주 50에서 블레셋의 ‘네찌브’는 수비대와 같은 군대가 아니라 블레셋의 총독(governor)과 같은 한 개인이라고 주장하였다. B. Lehnart, *Prophet und König im Nordreich Israel. Studien zur sogenannten vorklassischen Prophetie im Nordreich Israel anhand der Samuel-, Elija- und Elischa-Überlieferungen*, VT.S 96 (Leiden: Brill, 2003), 66과 D. T. Tsumura, *The First Book of Samuel* (Grand Rapids: Eerdmans, 2007), 336-337 역시 블레셋의 사령관(Vogt)이라고 주장하였다. 아마도 이 본문에서 단수 형태의 נְצִיב가 언급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23) 이와 함께 몇몇 학자들은 사울 초기 왕조 시대에 블레셋과의 연관성을 추측할 수 있는 또 다른 단초를 삼상 10:14에서 언급된 ‘도드(דוד)’에서 찾는다. דוד는 (무엇보다) 아가서에서 ‘사랑하는 자’를 의미하지만, 본 구절에서는 전통적으로 ‘숙부’를 의미한다. 이 구절은 아버지 기스의 명을 받고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난 사울이 사환의 제안으로 사무엘을 찾아가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된 사건 이후에 이어지는 본문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 과정 속에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등장하지 않고 이름 모를 사울의 숙부가 갑자기 등장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삼상 14:50에서 사울의 숙부는 ‘넬’(삼상 14:50)이라는 이름으로 구체적으로 언급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P. K. McCarter, *I Samuel,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Notes and Commentary*, AncB vol. 8 (New York: Doubleday, 1995), 184는 사울의 숙부로 번역되는 דוד를 블레셋의 수비대장이라고 주장하였다. דוד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S. Ascaso, “דוד, dōd”, G. J. Botterweck und H. Ringgen, hrsg., *ThWAT II* (Stuttgart: Kohlhammer, 1977), 152-167을 참고하라.

24) E. Robinson, *Biblical Researches in Palestine. Mount Sinai and Arabia Petraea*, vol. 2 (Boston: Crocker & Brewster, 1841), 114-115, accessed 1 Mai 2019 from <https://books.google.co.kr/>. 이후에도 많은 학자들이 그의 의견을 지지하였다. 예를 들면, J. M. Miller, “Geba / Gibeah of Benjamin”, *VT* 25 (1975), 155-157. 이외에 P. M. Arnold, *Gibeah. The Search for a Biblical City*, 108-109는 게바와 기브아는 동일 지명으로 북 왕국에서는 기브아로, 남 왕국에서는 게바로 불렸다고 주장하였다. 이외에도 P. Mommer, *Samuel. Geschichte und Überlieferung*, WMANT 65 (Neukirchen-Vluyn: Neukirchner Verlag, 1991), 112, 각주 296; P. M. Arnold, “Gibeah”, D. N. Freedman, ed., *ABD*, vol. 2

으로 좀 더 자세히 기브아에 대하여 언급하겠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 도시를 사울의 고향(삼상 10:26; 11:4)과 동일시했다.²⁵⁾ 그러나 데이(J. Day)²⁶⁾는 게바와 기브아가 서로 구별되어 언급된 성경 본문(수 18:24, 28; 사 10:29; 호 5:8 등)을 근거로 서로 다른 도시라고 주장했으며, 카이저(O. Kaiser)²⁷⁾는 좀 더 구체적으로 게바는 기브아로부터 북동쪽으로 10km에 위치한 도시라고 주장하였다. 무엇보다 기브아와 게바를 설명하는데 눈에 띄는 것은 기브아가 ‘베냐민의 기브아’(삼상 13:2; 14:16)로 언급된 것처럼, 게바 역시 ‘베냐민의 게바’(삼상 13:16; 왕상 15:22)와 ‘베냐민 자손에게 속한 게바’(느 11:31)와 같이 베냐민 지파의 영내에 위치한 도시로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게바의 지정학적 위치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논란거리지만, (동일 지명이든지 아니면 서로 다른 지명이든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게바와 기브아 모두 사울 왕국의 가장 강력한 지지 기반인 베냐민 지파에 속한 도시였다는 사실만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사울 왕국의 중심부에 위치한 게바에 블레셋의 גִּבְעַת²⁸⁾가 존재했다는 위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사울 왕국은 블레셋의 군사적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묵인하에 탄생된 왕국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²⁹⁾

크로이처(S. Kreuzer) 역시 사울 왕국 영토 내 블레셋의 גִּבְעַת이 주둔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초기 사울의 통치권은 블레셋의 동의하에 비로소 유지되었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즉, 사울 왕국 초창기에 여전히 블레셋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적 주도권을 행사했으며 사울은 블레셋의 봉신에 머물렀다

(New York: Doubleday, 1992), 1007-1009; 랄프 W. 클레인, 『사무엘상』, 김경열 역, WBC 성경주석 10 (서울: 솔로몬, 2004), 176, 224; K. Koenen, “Michmas / Geba”, accessed 29 Mai 2019 from <https://www.bibelwissenschaft.de/>를 참고할 수 있다.

25) P. Mommer, *Samuel. Geschichte und Überlieferung*, 72, 각주 111; G. Hentschel, *Saul. Schuld. Reue und Tragik eines Gesalbten*, 22. 무엇보다 H. J. Stoebe, “Zur Topographie und Überlieferung der Schlacht von Mikmas, I Sam 13 und 14”, *ThZ* 21 (1965), 269-280은 단지 전승과정의 오기일 뿐 동일한 지명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J. M. Miller, “Saul’s Rise to Power: Some Observations Concerning 1 Sam. 9.1-10.16; 10.26-11.15 and 13.2-14.46”, *CBQ* 36 (1974), 159-160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3km 떨어진 기스와 요나단과 함께 장사된 ‘셀라’(삼하 21:14)가 사울의 고향이라고 주장하였다.

26) J. Day, “Gibeon and the Gibeonites in the Old Testament”, R. Rezetko, T. Lim and B. Aucker, *Reflection and Refraction*, VT.S 113 (Leiden; Boston: Brill, 2006), 124-125.

27) O. Kaiser, “Der historische und der biblische König Saul (Teil II)”, *ZAW* 123 (2011), 1.

28) 삼하 8:6, 14을 통해서 גִּבְעַת이 종주국이 종속국 내에 임명한 ‘관리’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גִּבְעַת은 평등 관계가 아닌 군사적 힘에 의하여 종속된 양국 간의 정치적 관계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단어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29) J. Reindl, “גִּבְעַת / גִּבְעַת”, G. J. Botterweck und H. Ringgen, hrsg., *ThWAT V* (Stuttgart: Kohlhammer, 1986), 563; H. C. Schmitt, *Arbeitsbuch zum Alten Testament*, 28; W. Dietrich, *Samuel. 1 Sam 1-12*, BK.AT VIII/1 (Neukirchen-Vluyn: Neukirchner Verlag, 2010), 429, 각주 144.

는 것이다.³⁰⁾ 이러한 이유에서 사울 왕국 초기 통치 체제는 왕정 국가(‘kingdom’)가 아닌, 부족 사회보다는 좀 더 복잡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블레셋의 허락하에 사울이라는 ‘유력한’ 인물이 중심이 되는 군장 국가(君長國家)인 ‘chiefdom’³¹⁾에 머물렀다는 주장이 좀 더 설득력을 가진다.

그러나 사울의 정치 체제가 전형적인 왕정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블레셋과 사울 왕국의 정치적 역학 관계도 변했을 것이다. 크로이처는 양국 사이의 본격적인 정치 관계의 변화 시기에 대해, 요나단이 어느덧 훌륭한 전쟁 용사로 성장한 이후, 요나단이 자신의 지휘하에 게바에 머물고 있는 블레셋의 군대의 영문(יְנִינִי)을 급습한 사건(삼상 13:3-4)이 전환점이 되었다고 주장하였다.³²⁾ 또한 그는 사울이 블레셋과 군사적으로 대등한 위치에 올라설 수 있는 시기가 구체적으로 사울 통치 후반부, 즉 길보아 산 전투에서 죽기(삼상 31장) **이년 전에**³³⁾ 비로소 가능했다고 보았다.

또 스토틀베(H. J. Stoebe)는 사무엘상 11장에서 언급된 암몬과 사울과의 전쟁에서도 블레셋과 사울 왕국의 변화된 정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예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³⁴⁾ 그는 사울이 암몬과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던 시기를 사울이 사무엘상 13-14장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30) H. M. Niemann, “Nachbarn und Gegner”, 83과 W. Dietrich, *David. Der Herrscher mit der Harfe*, 140-146은 삼상 27장에서 언급되는 것처럼 다윗 역시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기 이전에는 네게브 사막 지역을 관장하는 블레셋의 봉신에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31) 군장 국가로서의 초창기 사울 왕국에 대하여는 J. W. Flanagan, “Chiefs in Israel”, *JSOT* 6:20 (1981), 47-73; H. M. Niemann, *Herrschaft, Königtum und Staat. Skizzen zur soziokulturellen Entwicklung im monarchischen Israel*, FAT 6 (Tübingen: Mohr Siebeck, 1993), 34-41; R. Kessler, “Chiefdom oder Staat? Zur Sozialgeschichte der frühen Monarchie”, R. Kessler, *Studien zur Sozialgeschichte Israels*, SBAB 46 (Stuttgart: Katholisches Bibelwerk, 2009), 157-158을 참고하라.

32) 무엇보다 S. Kreuzer, “Die Anfänge des Königtums in Israel”, 67은 여전히 사울은 블레셋의 봉신으로 머무르는 것을 원했지만, 그의 아들 요나단은 이를 거부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택했다고 주장하였다. 최근에 이 주장에 많은 학자들이 동의한다. 예를 들면, G. Hentschel, *Saul. Schuld. Reue und Tragik eines Gesalbten*, 23-24; W. Dietrich, *David. Der Herrscher mit der Harfe*, 206-207; R. Kessler, *Sozialgeschichte des alten Israel*, 107, 각주 42; O. Kaiser, “Der historische und der biblische König Saul (Teil II)”, 8-9.

33) S. Kreuzer, “Saul war noch zwei Jahre König ... Textgeschichtliche, literarische und historische Beobachtungen zu 1 Sam 13,1”, *BZ* 40 (1996), 263-270은 사울의 즉위 시기와 통치 기간이 부정확하게 언급된 삼상 13:1의 히브리어 본문(BHS)에 대한 본문비평과 편집비평을 통해서 “사울이 **이년 동안 여전히** 왕위를 유지했을 동안에…….”로 주석하였다. 이 시기에 때로는 블레셋이 때로는 사울이 전투에서 승리하였지만,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전사한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 대한 블레셋의 힘의 우위는 지속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정확한 시기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F. Stolz, *Das erste und zweite Buch Samuel*, ZBK.AT 9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1981), 84 역시 삼상 13:3의 상황은 확실히 사울 왕정 초기의 상황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34) H. J. Stoebe, *Das erste Buch Samuelis*, KAT VIII/1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1974), 207, 241.

이후로 보았다.³⁵⁾ 왜냐하면 사울이 블레셋에 가까운 자신의 기반 지역인 기브아를 떠나 요르단 강 동쪽 암몬 원정이 가능했던 것은 일시적으로나마 블레셋의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스토티베의 주장을 바탕으로 에델만(D. V. Edelman)은 9장부터 14장에서 언급된 사건을 역사순으로 재정리하였다. 그녀에 의하면 사울 왕국의 초창기 상황, 즉 사울 왕의 즉위 과정을 설명하는 9-10장이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이며, 이후에 사울 왕권이 안정화된 이후 일시적인 블레셋에 대한 승리(13-14장)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원정 및 승리(11장) 순이었다.³⁶⁾ 이처럼 사울이 왕으로 선택받는 이야기를 다루는 사무엘상 9장과 블레셋을 습격하여 상당한 전과를 올린 요나단의 용맹을 다룬 사무엘상 14장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으며 이를 통해 블레셋과 사울과의 변화된 정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2.3. 사무엘상 10:5상 “גִּבְעַת הָאֱלֹהִים”의 번역 제안과 근거

지금까지 기술한 블레셋과 초기 사울 왕국의 정치적 상황을 통해서 므마스과 게바와 같은 이스라엘 주요 도시에 블레셋의 군대가 머물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블레셋의 군대가 또 다른 이스라엘 지역에 주둔했다는 사실을 사울 왕국 초창기 상황을 전제하는 사무엘상 10:5상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구절에 대한 『개역개정』 번역은 다음과 같다.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 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삼상 10:5상).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존재했던 장소인 ‘하나님의 산’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본문(BHS)의 표현은 ‘기브아트 하엘로힘(גִּבְעַת הָאֱלֹהִים)’이다. 블레셋의 영문이 어디에 있었는가는 גִּבְעַת הָאֱלֹהִים에 대한 번역 제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이 구절은 하나님을 뜻하는 ‘엘로힘(אֱלֹהִים)’에 정관사와 결합된 ‘하엘로힘(הָאֱלֹהִים)’과 ‘기브아트(גִּבְעַת)’가 결합된 형태이다. גִּבְעַת를 문법적으로 분석해 보면 ‘(작은) 산’(창 49:26; 민 23:9; 삼하 2:24; 6:4; 시 65:12), ‘언덕’ 그리고 ‘산꼭대기’(출 17:9, 10)를 의미하는 보통 명사³⁷⁾ 또는 도시명인 ‘기브아’(수 15:57; 18:28; 삿 19장; 20장)를 의미하는 히

35) 이외에도 P. M. Arnold, *Gibeah. The Search for a Biblical City*, 96.

36) D. V. Edelman, “Saul’s Rescue of Jabesh-Gilead (1 Sam. 11.1-11). Sorting Story from History”, *ZAW* 96 (1984), 195-209.

37) S. Talmon, “גִּבְעָה / הָרַ”, G. J. Botterweck und H. Ringgen, hrsg., *ThWAT II* (Stuttgart: Kohlhammer, 1977), 463-466. 사 2:2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הָרַ는 비교적 높은 산을 גִּבְעָה는 낮은 산을 의미한다.

브리어 ‘기브아(גִּבְעָה)’의 여성 단수 연결형 명사이다. 결국 블레셋 군대가 머문 장소가 이스라엘 영토 안 곳곳에 존재했던 일반적인 ‘산’을 의미하는 지 ‘기브아’라는 특정 지명을 의미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 내용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גִּבְעָה הַאֱלֹהִים이라는 표현이 구약에서 오직 이곳에서만 언급되기 때문에, 여타의 다른 본문과 비교해서 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주요 우리말 성서 번역본에서는 גִּבְעָה를 지명 ‘기브아’가 아닌 ‘산’ 또는 ‘언덕’의 의미만으로 번역했음을 알 수 있다.³⁸⁾

『개역』	『표준』	『공동』	『새번역』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니	그런 다음에 그대는 하나님의 산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나서 ... 하느님의 언덕에 이르러	그런 다음에 그대는 하나님의 산으로 가십시오.

이와 달리 다음과 같이 독일어 성서 번역본과 영어 성서 번역본은 지명을 뜻하는 ‘하나님의 기브아(독: Gibea Gottes 또는 Elohim; 영: Gibeah of God)’와 언덕을 뜻하는 ‘하나님의 언덕(독: Hügel Gottes; 영: hill of God)’을 혼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LB	ZUR	LUT	EIN
Danach wirst du zu dem Hügel Gottes kommen	Danach wirst du nach dem Gibea Gottes kommen	Danach wirst du nach Gibea Gottes kommen,	Danach wirst du nach Gibeat-Elohim kommen

NIV	NAS	NJB	NKJ
After that you will go to Gibeah of God	Afterward you will come to the hill of God	After this, you will come to Gibeah of God	After that you shall come to the hill of God

이와 달리 주요 프랑스어 성서 번역본은 지명을 뜻하는 ‘하나님의 기브아’로만 번역하고 있다.

BFC	LSG	FBJ	NEG
Guibéa-Élohim	Guibea-Élohim	Gibéa de Dieu	Guibea-Élohim

이와 같이 주요 외국어 성서 번역본은 גִּבְעָה הַאֱלֹהִים의 גִּבְעָה를 일반 명사인 ‘산’으로 번역하기보다는 지명을 뜻하는 ‘기브아’로 번역하고 있다는 사

38) 이외에 다른 한글 번역본 『제임스왕역』(KJV)도 “하나님의 산”으로 번역하고 있다.

실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이와 같이 번역한다면, 블레셋의 군대는 어느 곳인지 불분명한 ‘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명인 ‘기브아’라는 도시에 머물렀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사무엘서에서 블레셋 군대(בְּנֵי־בְּלֵשֶׁת) 또는 (בְּנֵי־בְּלֵשֶׁת)가 주둔한 곳은 특정 도시였지,³⁹⁾ 단 한 번도 산과 같은 불분명한 장소에 주둔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주요 외국어 성서 번역본이 제시하는 것에 따라 ‘하나님의 기브아’로 번역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언급할 ‘기브아’라는 도시가 지닌 정치적 그리고 신학적 의미를 살펴보고 הַאֲלֵהִים הַגִּבְעָה를 ‘하나님의 산’이 아닌 ‘하나님의 기브아’로 번역하는 것의 적합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2.3.1. 기브아의 정치적 의미: 사울의 기브아

‘기브아’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는 구약에서 총 3개이다. 가나안 정복 시 유다 지파가 차지한 기브아(수 15:57), 에브라임 산간 지방의 기브아(수 24:33) 그리고 본 연구와 연관된 베냐민 지파가 차지한 성읍 중 하나인 기브아(수 18:28)로 이들 세 도시 모두 히브리어 ‘기브아’가 의미하는 것처럼 평지가 아닌 언덕 또는 낮은 산에 위치하고 있다.⁴⁰⁾ 이들 세 도시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사울과 연관된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가 차지한 기브아로 한정된다.

예루살렘 북쪽 10km 지점 높은 지대에 위치한 기브아에는, 동서남북을 모두 한 번에 볼 수 있는 지정학적 특성을 활용하여 사울 시대 이전부터 이미 이스라엘 남서쪽에 위치한 가장 중요한 군사 요새가 건설되었다.⁴¹⁾ 뿐만 아니라 기브아는 남쪽으로는 예루살렘과 북쪽으로는 여리고를 연결하는 도시이자 서쪽으로는 지중해에서 동쪽으로는 요르단으로 향하는 교통 및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도시였다.⁴²⁾ 무엇보다도 기브아가 사울에게 있어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사울의 고향(삼상

39) 실제로 블레셋 부대(בְּנֵי־בְּלֵשֶׁת)가 머문 곳은 므마스(삼상 13:23; 14:1, 4, 6, 11, 15)와 베들레헴(삼하 23:14)이었으며 블레셋의 수비대(בְּנֵי־בְּלֵשֶׁת)가 주둔한 곳은 게바(삼상 13:3)와 다메섹(삼하 8:6)과 같은 특정 지역이었다.

40) K. Koenen, “Gibeā” (erstellt: Jan. 2006; letzte Änderung: Juli 2016), accessed 29 April 2019 from <https://www.bibelwissenschaft.de/>.

41) B. Mazar, *Biblical Israel. State and People* (Jerusalem: Magnes Press, 1992), 36은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이곳에 2개의 블레셋 요새가 존재했음을 증명했으며, W. F. Albright, “A New Campaign of Excavations at Gibeah of Saul”, *BASOR* 52 (1933), 7은 사울 역시 요새를 건축했다고 주장하였다.

42) 이러한 이유에서 E. A. Knauf, “Saul, David, and the Philistines: from Geography to History”, *BN* 109 (2001), 17은 블레셋이 기브아에 군대를 주둔한 이유에 경제적 목적도 포함시켰다.

10:26; 11:4)을 뛰어넘어 사울 왕국의 첫 번째 수도⁴³⁾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울 왕국에 있어서 지정학적, 군사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중요한 ‘기브아’가 사무엘상 10:5상반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기브아’와 동일한가는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는 신학적 주제이다. 이에 대하여 기브아는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 영내에 위치한 성읍이라는 사실은 전제하고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시몬스(J. J. Simons)는 (나지막한) 언덕을 의미하는 베냐민 지파 영역에 속한 게바(수 21:17)를 ‘하나님의 기브아’와 동일시했다.⁴⁴⁾ 여기서 말하는 게바는 사무엘상 13:3에서 언급된 게바와는 다른 도시이다. 블렌킨소프(J. Blenkinsopp)는 ‘하나님의 기브아’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0km 북쪽에 위치한 ‘기브온’ 또는 기브온 안에 존재한 성소를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⁴⁵⁾ 여기에 뎀스키(A. Demsky)는 사울 왕국의 중요한 성소와 블레셋 군대 기지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도시는 기브온이 유일하다고 주장하였다.⁴⁶⁾ 그러나 ‘하나님의 기브아’ 속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이자 사울 왕국의 수도 ‘기브아’와 동일한 지명으로 보는 주장이 많은 학자들의 지지를 받는다.⁴⁷⁾

43) K. D. Schunk, *Benjamin. Untersuchungen zur Entstehung und Geschichte eines israelitischen Stammes*, BZAW 86 (Berlin: Walter de Gruyter, 1963), 131-138; J. Blenkinsopp, *Gibeon and Israel. The Role of Gibeon and the Gibeonites in the Political and Religious History of Early Israel*, SOTS 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2), 63-64; J. Blenkinsopp, “Did Saul Make Gibeon His Capital?”, *VT* 24 (1974), 6-7; T. Ishida, *The Royal Dynasties in Ancient Israel. A Study on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Royal-Dynastic Ideology*, BZAW 142 (Berlin: Walter de Gruyter, 1977), 122-124; P. Mommer, *Samuel. Geschichte und Überlieferung*, 72; O. Kaiser, “Der historische und der biblische König Saul (Teil I)”, *ZAW* 122 (2010), 537. 여기에 J. Day, “Gibeon and the Gibeonites in the Old Testament”, 123, 각주 31에서 언급된 문헌도 참고하라.

44) J. J. Simons, *The Geographical and Topographical Texts of the Old Testament. A Concise Commentary in XXXII Chapters* (Leiden: Brill, 1959), 669-670. 이외에도 J. M. Miller, “Geba / Gibeah of Benjamin”, 165, 각주 75; 랄프 W. 클레인, 『사무엘상』, 176과 224.

45) J. Blenkinsopp, *Gibeon and Israel. The Role of Gibeon and the Gibeonites in the Political and Religious History of Early Israel*, 59; J. Blenkinsopp, “Did Saul Make Gibeon His Capital?”, 1-7. D. V. Edelman, “Saul’s Rescue of Jabesh-Gilead (1 Sam. 11.1-11). Sorting Story from History”, 204-205와 E. A. Knauf, “Saul, David, and the Philistines: from Geography to History”, 17 역시 이에 동의하였다.

46) A. Demsky, “Geba, Gibeah, and Gibeon. An Historico-Geographic Riddle”, *BASOR* 212 (1973), 26-31.

47) T. Ishida, *The Royal Dynasties in Ancient Israel*, 123-124; C. Schäfer-Lichtenberger, *Stadt und Eidgenossenschaft im Alten Testament. Eine Auseinandersetzung mit Max Webers Studie »Das antike Judentum«*, BZAW 156 (Berlin: Walter de Gruyter, 1983), 202-203; P. Mommer, *Samuel. Geschichte und Überlieferung*, 116; K. van der Toorn, “Saul and the Rise of Israelite State Religion”, *VT* 43 (1993), 520-521; P. M. Arnold, *Gibeah. The Search for a Biblical City*, 28. 이와 관련하여 P. M. Arnold, “Gibeath-Elohim”, D. N. Freedman, ed., *ABD*,

또한 הַגִּבְעָה가 사울과 연관되어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베냐민의 기브아(‘기브아트 벤야민 [גִּבְעַת בְּנֵימִן])’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오직 사울과 연관되어 사용되었다는 것이다(삼상 13:2, 15; 14:16). 아마도 이는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표현했을 것이다(삼상 9:1). 둘째, 마치 유다 왕국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다윗의 성으로 인식했던 것처럼(삼하 5:7; 6:10; 왕상 2:10; 9:24 등), 시간이 상당히 흐른 뒤에 성경 기자는 기브아를 ‘사울의 기브아’(삼상 11:4; 15:34; 삼하 21:6; 비교: 사 10:29)로 표현함으로써 사울 왕국의 수도였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사울과 연관되어 총 12번 언급된 히브리어 단어 הַגִּבְעָה는 논란이 되는 사무엘상 10:5와 이어지는 10절을 제외하고 모두 지명 기브아를 의미한다는 것이다.⁴⁸⁾ 즉, 사울과 연관된 이 단어는 보통 명사 ‘산’이 아닌 도시 ‘기브아’를 의미했다고 볼 수 있다.⁴⁹⁾ 이러한 이유에서 대다수의 한글 성경이 이어지는 사무엘상 10:10에서 언급된 הַגִּבְעָה 역시 5절과 함께 ‘산’⁵⁰⁾으로 번역하기보다는 ‘기브아’라는 지명으로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⁵¹⁾

2.3.2. 기브아의 신학적 의미: 하나님의 기브아

사무엘상 10:5상반의 ‘하나님의 기브아’라는 표현이 신학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논하기 전에 먼저 전제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이 구절은 정치적으로 친사울적 관점, 즉 사울 및 사울 왕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긍정적 관점에서 어떻게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선택받았는가를 이야기하는 사무엘상 9:1-10:16에 속한다는 것이

vol. 2 (New York: Doubleday, 1992), 1009는 ‘하나님의 기브아’를 기브아와 동일시하지 않고 이어지는 5절하에서 언급된 ‘산당’과 연관시켜 기브아 안 또는 근처에 위치한 제의적으로 거룩한 장소(“high place”)인 성소를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N. Na’aman, “The Pre-Deuteronomistic Story of King Saul and Its Historical Significance”, *CBQ* 54 (1992), 651-652는 ‘하나님의 기브아’를 법제가 안치된 사울 왕국의 중앙 성소가 있었던 장소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M. Gleis, *Die Bamah*, BZAW 251 (Berlin: Walter de Gruyter, 1997), 45-46은 이러한 주장에 반대하여 ‘하나님의 기브아’는 결코 ‘성소’와 연관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48) הַגִּבְעָה는 삼상 23:19과 26:1 그리고 26:3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사울이 아닌 다윗과 연관되어 ‘하길라’라는 산을 설명하는 보통 명사로 사용되었다.

49) ‘하나님의 기브아’는 이러한 이유에서 이어지는 5ba절에서 ‘그 성읍(‘하이르[הַיִּיר])’으로 한정되었을 것이다.

50) 예를 들면, 『개역한글』, 『개역개정』 그리고 『새번역』 등 『공동』은 비슷한 의미의 ‘언덕’으로 번역하고 있다.

51) 결국 삼상 10장에서 3번 언급된 הַגִּבְעָה 즉, 5절의 ‘하나님의 기브아’, 10절의 ‘기브아’는 26절 사울 왕정의 첫 번째 수도인 ‘기브아’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K. van der Toorn, “Saul and the Rise of Israelite State Religion”, 521을 참조하라.

다.⁵²⁾ 둘째, 이 에피소드는 앞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사울 왕국 초창기 역사적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친사울적 관점에서 기록된 이 에피소드 속에서 사울 및 사울 왕국에 대한 긍정적인 신학적 견해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 예로 사울이 산당(‘바마[בָּמָה]’)⁵³⁾에서 YHWH의 선택을 받고 사무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삼상 10:1). 또 다른 예로 본 연구의 주제가 되는 사울 왕국의 수도인 기브아를 ‘하나님의 기브아’라고 표현한 것을 들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사울의 기브아’라는 표현이 정치적 의미를 내포한다면, ‘하나님의 기브아’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브아를 선택 하셨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신학적 의도가 표현된다는 것이다.⁵⁴⁾ 물론 ‘하나님의 기브아’라는 표현 속에 정치적 의도도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브아’는 ‘사울의 기브아’이자 사울 왕국의 수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브아 및 사울 왕국도 보호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루살렘은 정치적 목적에서는 ‘다윗 성’(총 44번)으로, 신학적 목적으로는 ‘YHWH의 도시’(사 60:14; 시 48:4; 101:8) 또는 ‘하나님의 도시’(시 46:4; 48:1, 8; 87:3)⁵⁵⁾와 같이 다른 이름으로 불렸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왕국의 수도로 세웠기에 ‘다윗 성’(삼하 5:9)으로 불렸으며, 예루살렘을 YHWH가 직접 선택하였기에 그곳에서만 YHWH를 위한 번제가 드려지고(신 12:14, 18; 14:25; 15:20 등), 그곳에 YHWH를 위한 성전이 건축되고(왕상 8:12-13), 그곳이 YHWH의 거처가 되었기에(시 135: 21) ‘YHWH의 도시’로 불린 것이다. 결국, YHWH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YHWH 앞에 범죄를 저질렀기에 멸망당했지만(애

52) G. Hentschel, *Saul. Schuld. Reue und Tragik eines Gesalbten*, 48-49; 강사문, 『사무엘상』, 성서주석 8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8), 48. 자세한 주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P. Mommer, *Samuel. Geschichte und Überlieferung*, 92-112와 W. Dietrich, *Samuel. 1 Sam 1-12*, 398-405를 참고하라.

53) 김정봉, “다윗의 조가(삼하 1:17-27). 다윗의 왕정 이념의 노래”, 『성경원문연구』 35 (2014), 37-38이 올바르게 지적한 것처럼 사울 이야기 속 ‘산당’은 YHWH에게 제의가 규칙적으로 드려진 장소였기 때문에(삼상 9:12-13) 이곳에서 사울이 왕으로 선택받았다는 것 역시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54) O. Keel, *Die Geschichte Jerusalems und die Entstehung des Monotheismus*, Teil 2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7), 69-72.

55) M. Lichtenstein, *Von der Mitte der Gottesstadt bis ans Ende der Welt. Psalm 46 und die Kosmologie der Zionstradition*, WMANT 139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14), 231, 각주 1이 올바르게 지적한 것처럼 소위 고라 자손의 시편에서만 언급되는 ‘하나님의 성’ 즉 ‘이르 엘로힘(עִיר־אֱלֹהִים)’은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을 의미한다.

1:18; 미 3:10-12; 합 2:12), 그전까지 YHWH는 ‘YHWH의 성’과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을 보호해야만 했으며, 다윗의 자손들이 YHWH 앞에서 악한 일을 행하여 심판하기 전까지(왕하 21:16; 22:17) 다윗 왕조의 수도인 ‘다윗 성’도 보호해야만 했다.

‘하나님이 왕국의 수도를 보호한다’는 이러한 사상은 구약 이외에도 이미 수메르 도시 국가 시대에서도 확인된다. 수메르 신화에 의하면, 천상세계의 신들은 지상 세계의 인간들에게도 숭배를 받아야만 했다. 이를 위해서 천상 세계의 성전이 지상 세계에 내려와서 천상 세계와 동일한 성전이 건축되어야만 했으며, 그 장소는 보통 지상의 통치자가 거주하고 있는 수도였다.⁵⁶⁾ 이와 같은 개념은 이후 아시리아 제왕 이데올로기와 연관되어서 ‘제국의 신 아수르는 아시리아의 모든 왕 자신의 지상 대리인이자 최고 제사장이었던 아시리아 왕이 거하는 수도 아수르⁵⁷⁾ 내 왕궁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왕궁을 방문한다.’⁵⁸⁾와 같은 개념으로 확대 발전하였다. 왜냐하면 ‘지상의 왕은 자신의 아들이자 지상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합법적인 통치권을 부여받은 유일한 존재’⁵⁹⁾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아수르는 왕이 거하는 ‘종교적 수도이자 제국의 정치적 수도 아수르’를 보호할 의무가 있었다.⁶⁰⁾ 비록 신아시리아 제국 시대 이후 아시리아의 정치적

56) S. M. Maul, “Die altorientalische Hauptstadt. Abbild und Nabel der Welt”, G. Wilhelm, hrsg., *Die orientalische Stadt. Kontinuität, Wandel, Bruch. 1. Internationales Colloquium der Deutschen Orient-Gesellschaft, 9.-10. Mai 1996 in Halle/Saale* (Saarbrücken: In Kommission bei SDV Saarbrücker Druckerei und Verlag, 1997), 109-124.

57) 기원전 3000년 전부터 티그리스 강 서쪽에 위치한 아수르(Aššur)는 북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도시이자, 이 도시의 수호신 아수르의 중앙 성소가 건축되어 종교적으로도 중요한 도시였다. 이 도시는 기원전 18세기 샴시-아다드 1세(Šamši-Adad I.)에 의해서 고대 아시리아의 종교 중심지가 되었으며, 14세기에 중기 아시리아의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 수도로 격상되었다. 아수르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위하여는 A. Schmitt, “Assur (Stadt)” (erstellt: Jan. 2017), accessed 15 April 2019 from <https://www.bibelwissenschaft.de/>를 참고할 수 있다.

58) E. Cancik-Kirschbaum, *Die Assyrer. Geschichte, Gesellschaft, Kultur*, 2. Aufl. (München: C. H. Beck Wissen, 2007), 110-114.

59) 이러한 사상은 수메르 도시 국가 시대부터 이 지역 마지막 패권 국가였던 바빌로니아의 마지막 왕 나보니두스까지 확인되는 메소포타미아 제왕 이데올로기의 핵심 사상이다. 이에 대하여는 W. von Soden, “Babylonisch-assyrische Religion”, G. Müller, u. a., hrsg., *TRE 5* (Berlin: Walter de Gruyter, 1980), 86-87과 M. Dietrich und W. Dietrich, “Zwischen Gott und Volk. Einführung des Königtums und Auswahl des Königs nach mesopotamischer und israelitischer Anschauung”, M. Dietrich und I. Kottsieper, hrsg., “*Und Mose schrieb dieses Lied auf*”. *Studien zum Alten Testament und zum Alten Orient: Festschrift für Oswald Loretz zur Vollendung seines 70. Lebensjahres mit Beiträgen von Freunden, Schülern und Kollegen*, AOAT 250 (Münster: Ugarit-Verlag, 1998), 228-236을 참고하라.

60) H. J. Nissen, *Geschichte Altvorderasiens*, 2. Aufl., OGG 25 (München: Odlenbourg, 2012), 81-82.

수도와 종교적 수도가 분리되었지만,⁶¹⁾ 아수르가 정치적 수도와 종교적 수도 모두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다.

이와 같이 각국의 수도는 그곳에서 숭배되어지는 신적 존재가 선택했기 때문에 이곳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왕국을 보호한다는 신학적 그리고 정치적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도 사무엘상 10:5에서 언급된 **הַגְּבֵעַת הָאֱלֹהִים**를 ‘하나님의 산’으로 번역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기브아’로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신학적 이유에서 적합한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3. 나가는 말

사무엘서는 이스라엘 탄생 전에 크고 작은 블레셋의 군사적 위협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블레셋의 군사적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왕정이라는 새로운 정치 제도가 탄생되었다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였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왕국 탄생에 영향을 끼친 다양한 제도적, 사회적 요인을 지나치게 단순화시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예를 들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두 나라 모두에게 서로 이익이 되는 관계(삼상 13:19-21)였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또한 사울 왕국이 초창기 블레셋과의 정치적 관계를 지나치게 단순화시킨 측면이 있다. 결국 블레셋의 군사적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탄생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묵인하에 탄생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가능한 이유는 사울이 왕으로 즉위한 이후 왕조의 가장 강력한 지지 기반인 베냐민 지파의 영내에 주둔한 블레셋의 수비대 **גִּבְעַת**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게바에 블레셋의 수비대(삼상 13:3)가 주둔하였다.

이와 함께 본 연구의 핵심 본문인 사무엘상 10:5에서도 블레셋의 수비대가 이스라엘 영내에 위치한 **הַגְּבֵעַת הָאֱלֹהִים**에 주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구절에서 언급된 **הַגְּבֵעַת**은 일반적으로 지명 ‘기브아’나 보통 명사 ‘산’(또는 ‘언덕’)을 의미하는 **גְּבֵעָה**의 연결형 명사이다. 이를 토대로

61) 아시리아의 전 역사를 통틀어 종교적 수도는 항상 제국의 주신 아수르의 중앙 성소가 있었던 아수르였다. 신아시리아 제국이 등장한 이후에는 아수르는 종교적 수도로서 위상만 유지했을 뿐 정치적 수도로서의 지위는 상당히 상실되었다. 왜냐하면 9세기 칼후(Kalhu), 8세기 두르-사루킨(Dur-Šarrukin), 니느웨(Ninive) 그리고 제국 멸망 직전 3년 동안 하란(Haran) 등 아시리아의 정치적 수도는 국내 제국의 상황에 따라 변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수도는 거대한 제국의 영토와 비교해보면 종교적 수도인 아수르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에 위치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R. S. Salo, *Die jüdische Königsideologie im Kontext der Nachbarkulturen. Untersuchungen zu den Königspsalmen 2, 18, 20, 21, 45 und 72*, ORA 25 (Tübingen: Mohr Siebeck, 2017), 308, 각주 162를 참고하라.

직역한다면 ‘하나님의 기브아’ 또는 ‘하나님의 산’과 같은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말 성경 번역본 대부분은 ‘하나님의 산’으로만 번역하고 있다. 이와 달리 독일어와 영어 성경 번역본은 두 가지를 혼용하고 있으며, 프랑스어 주요 성경 번역본은 우리말 성경과는 달리 ‘하나님의 기브아’로만 번역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본 연구는 단순히 이 구절에 대한 다수의 외국어 번역본의 제안이 아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하나님의 산’이 아닌 ‘하나님의 기브아’로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초기 사울 왕국과 블레셋과의 정치적 상황과 연관시켜서 생각한다면 블레셋의 군대가 베냐민 지파 영내에 위치한 기브아, 즉 ‘하나님의 기브아’에 주둔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사무엘서에서 גִּבְעַת는 사울과 관련되어 총 12번 언급되었지만 논란이 되는 본 구절과 이어지는 10절을 제외하고 10번 모두 ‘산’이 아닌 ‘기브아’라는 특정 지명의 의미로만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사무엘서에서 언급된 도시 ‘기브아’는 사울에게 정치적으로 특별한 도시였다. 기브아는 사울의 중요한 정치적 지지 기반인 베냐민 지파에 속한 도시이자(삼상 13:2, 15; 14:16) 그의 고향(삼상 10:26; 11:4)이었다. 사울이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기브아는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상 최초의 수도라는 영예를 누렸다. 이러한 이유에서 성경 기자는 기브아를 ‘사울의 기브아’(삼상 11:4; 15:34; 삼하 21:6)로 칭했을 것이다. 셋째, ‘하나님의 기브아’라는 표현 속에는 사울 왕국과 관련된 특별한 신학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גִּבְעַת הָאֱלֹהִים라는 표현이 언급된 본문은 사울 왕국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친사울적 관점에서 쓰였기 때문이다. 마치 다윗 왕조의 수도 예루살렘을 ‘YHWH의 도시’로 표현함으로써 다윗 왕조의 영원성과 YHWH의 보호하심이 강조된 것처럼, ‘하나님의 기브아’라고 표현은 ‘사울 왕국은 YHWH이 허락한 왕조이다’라는 사실과 ‘사울 왕국의 수도 기브아를 보호하실 것이다’라는 신학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많은 수의 우리말 성경 번역본이 ‘하나님의 산’으로 번역하고 있는 사무엘상 10:5상반의 히브리어 본문(BHS) “גִּבְעַת הָאֱלֹהִים”을 ‘하나님의 기브아’로,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에서 언급된 גִּבְעַת 역시 ‘산’이 아닌 ‘기브아’로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

<주제어>(Keywords)

사울, 왕국의 수도, 기브아, 블레셋, 제왕 이데올로기.

Saul, Capital of the kingdom, Gibeah, Philistines, Royal ideology.

<참고문헌>(References)

- 강사문, 『사무엘상』, 성서주석 8,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8.
- 김정봉, “다윗의 조가(삼하 1:17-27). 다윗의 왕정 이념의 노래”, 『성경원문연구』 35 (2014), 27-47.
- 브라이트, 존, 『이스라엘 역사』, 박문재 역, 제3증보판,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81.
- 클레인, 랄프 W., 『사무엘상』, 김경열 역, WBC 성경주석 10, 서울: 솔로몬, 2004.
- Albright, W. F., “A New Campaign of Excavations at Gibeah of Saul”, *BASOR* 52 (1933), 6-13.
- Alt, A., “Die Staatenbildung der Israeliten in Palästina”, A. Alt, *Kleine Schriften zur Geschichte des Volkes Israel*, Band II, 3. Aufl., München: C. H. Beck, 1964, 1-63.
- Arnold, P. M., “Gibeah”, D. N. Freedman, ed., *ABD*, vol. 2, New York: Doubleday, 1992, 1007-1009.
- Arnold, P. M., *Gibeah. The Search for a Biblical City*, JSOT.S 79, Sheffield: JSOT Press, 1990.
- Arnold, P. M., “Gibeath-Elohim”, D. N. Freedman, ed., *ABD*, vol. 2, New York: Doubleday, 1992, 1009.
- Ascaso, S., “גִּבְעָה, *dôḡ*”, G. J. Botterweck und H. Ringgen, hrsg., *ThWAT II*, Stuttgart: Kohlhammer, 1977, 152-167.
- Berlejung, A., “Geschichte und Religionsgeschichte des antiken Israel”, J. C. Gertz, hrsg., *Grundinformation Altes Testament. Eine Einführung in Literatur, Religion und Geschichte des Alten Testaments*, 3. Aufl.,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9, 59-192.
- Blenkinsopp, J., “Did Saul Make Gibeon His Capital?”, *VT* 24 (1974), 1-7.
- Blenkinsopp, J., *Gibeon and Israel. The Role of Gibeon and the Gibeonites in the Political and Religious History of Early Israel*, SOTS 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2.
- Boecker, H. J., “Die Entstehung des Königtums”, H. J. Boecker, et al., *Altes Testament*, 5. Aufl., Neukirchen-Vluyn: Neukirchner Verlag, 1996, 38-48.
- Cancik-Kirschbaum, E., *Die Assyrer. Geschichte, Gesellschaft, Kultur*, 2. Aufl., München: C. H. Beck Wissen, 2007.
- Day, J., “Gibeon and the Gibeonites in the Old Testament”, R. Rezetko, T. Lim and B. Aucker, *Reflection and Refraction*, VT.S 113, Leiden; Boston: Brill, 2006, 113-137.
- Demsky, A., “Geba, Gibeah, and Gibeon. An Historico-Geographic Riddle”,

BASOR 212 (1973), 26-31.

- Dietrich, M. und Dietrich, W., “Zwischen Gott und Volk. Einführung des Königtums und Auswahl des Königs nach mesopotamischer und israelitischer Anschauung”, M. Dietrich und I. Kottsieper, hrsg., “*Und Mose schrieb dieses Lied auf*”. *Studien zum Alten Testament und zum Alten Orient: Festschrift für Oswald Loretz zur Vollendung seines 70. Lebensjahres mit Beiträgen von Freunden, Schülern und Kollegen*, AOAT 250, Münster: Ugarit-Verlag, 1998, 215-264.
- Dietrich, W., *David. Der Herrscher mit der Harfe*, Biblische Gestalten 14,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2006.
- Dietrich, W., *Samuel. 1 Sam 1-12*, BK.AT VIII/1, Neukirchen-Vluyn: Neukirchner Verlag, 2010.
- Donner, H., *Geschichte des Volkes und seiner Nachbarn in Grundzügen. Teil 1: Von den Anfängen bis zur Staatenbildungszeit*, 3. Aufl., GAT 4/1,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0.
- Edelman, D. V., “Saul’s Rescue of Jabesh-Gilead (1 Sam. 11.1-11). Sorting Story from History”, *ZAW* 96 (1984), 195-209.
- Finkelstein, I., “The Emergence of the Monarchy in Israel the Environmental and Socio-Economic Aspects”, *JSOT* 14:44 (1989), 43-74.
- Finkelstein, I., “The Philistines in the Bible: A Late-Monarchic Perspective”, *JSOT* 27:2 (2002), 131-167.
- Flanagan, J. W., “Chiefs in Israel”, *JSOT* 6:20 (1981), 47-73.
- Frevel, C., “Grundriss der Geschichte Israels”, E. Zenger, u. a., *Einleitung in das Alte Testament*, 8. Aufl., KStTh 1,1, Stuttgart: Kohlhammer, 2012, 701-855.
- Gleis, M., *Die Bamah*, BZAW 251, Berlin: Walter de Gruyter, 1997.
- Gunneweg, A. H. J., *Geschichte Israels, Von den Anfängen bis Bar Kochba und von Theodor Herzl bis zur Gegenwart*, 6. Aufl., ThW 2, Stuttgart: Kohlhammer, 1989.
- Hentschel, G., *Saul. Schuld. Reue und Tragik eines Gesalbten*, Biblische Gestalten 7,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2003.
- Ishida, T., *The Royal Dynasties in Ancient Israel. A Study on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Royal-Dynastic Ideology*, BZAW 142, Berlin: Walter de Gruyter, 1977.
- Kaiser, O., “Der historische und der biblische König Saul (Teil I)”, *ZAW* 122 (2010), 520-545.
- Kaiser, O., “Der historische und der biblische König Saul (Teil II)”, *ZAW* 123

(2010), 1-14.

- Keel, O., *Die Geschichte Jerusalems und die Entstehung des Monotheismus*, Teil 2,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7.
- Kessler, R., “Chieftdom oder Staat? Zur Sozialgeschichte der frühen Monarchie”, R. Kessler, *Studien zur Sozialgeschichte Israels*, SBAB 46, Stuttgart: Katholisches Bibelwerk, 2009, 148-166.
- Kessler, R., *Sozialgeschichte des alten Israel. Eine Einführung*, Darmstadt: WBG, 2006.
- Knauf, E. A., “Saul, David, and the Philistines: from Geography to History”, *BN* 109 (2001), 15-18.
- Koenen, K., “Gibeā” (erstellt: Jan. 2006; letzte Änderung: Juli 2016), accessed 29 April 2019 from <https://www.bibelwissenschaft.de/>.
- Koenen, K., “Michmas / Geba” (erstellt: Nov. 2007), accessed 29 Mai 2019 from <https://www.bibelwissenschaft.de/>.
- Kosmala, H., “גִּבְעָה”, G. J. Botterweck und H. Ringgen, hrsg., *ThWAT* I, Stuttgart: Kohlhammer, 1973, 901-919.
- Kreuzer, S., “Saul war noch zwei Jahre König … Textgeschichtliche, literarische und historische Beobachtungen zu 1 Sam 13,1”, *BZ* 40 (1996), 263-270.
- Kreuzer, S., “»War Saul auch unter den Philistern?«. Die Anfänge des Königtums in Israel”, *ZAW* 113 (2001), 56-73.
- Lehnart, B., *Prophet und König im Nordreich Israel. Studien zur sogenannten vorklassischen Prophetie im Nordreich Israel anhand der Samuel-, Elija- und Elischa-Überlieferungen*, VT.S 96, Leiden: Brill, 2003.
- Lichtenstein, M., *Von der Mitte der Gottesstadt bis ans Ende der Welt. Psalm 46 und die Kosmologie der Zionstradition*, WMANT 139,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14.
- Maul, S. M., “Die altorientalische Hauptstadt. Abbild und Nabel der Welt”, G. Wilhelm, hrsg., *Die orientalische Stadt. Kontinuität, Wandel, Bruch. 1. Internationales Colloquium der Deutschen Orient-Gesellschaft, 9.-10. Mai 1996 in Halle/Saale*, Saarbrücken: In Kommission bei SDV Saarbrücker Druckerei und Verlag, 1997, 109-124.
- Mazar, B., *Biblical Israel. State and People*, Jerusalem: Magnes Press, 1992.
- McCarter, P. K., *I Samuel,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Notes and Commentary*, AncB, vol. 8, New York: Doubleday, 1995.
- Miller, J. M., “Geba / Gibeah of Benjamin”, *VT* 25 (1975), 145-166.
- Miller, J. M., “Saul’s Rise to Power: Some Observations Concerning 1 Sam. 9.1-10.16; 10.26-11.15 and 13.2-14.46”, *CBQ* 36 (1974), 157-174.

- Mommer, P., *Samuel. Geschichte und Überlieferung*, WMANT 65, Neukirchen-Vluyn: Neukirchner Verlag, 1991.
- Na'aman, N., “The Pre-Deuteronomistic Story of King Saul and Its Historical Significance”, *CBQ* 54 (1992), 638-658.
- Neu, R., “Die Entstehung des israelitischen Königtums im Lichte der Ethnozoziologie”, C. Sigrist und R. Neu, hrsg., *Die Entstehung des Königtums. Ethnologische Texte zum Alten Testament*, Band 2, Neukirchen-Vluyn: Neukirchner Verlag, 1997, 12-20.
- Niemann, H. M., *Herrschaft, Königtum und Staat. Skizzen zur soziokulturellen Entwicklung im monarchischen Israel*, FAT 6, Tübingen: Mohr Siebeck, 1993.
- Niemann, H. M., “Nachbarn und Gegner, Konkurrenten und Verwandte Judas. Die Philister zwischen Geographie und Ökonomie, Geschichte und Theologie”, U. Hübner und E. A. Knauf, hrsg., *Kein Land für sich allein: Studien zum Kulturkontakt in Kanaan, Israel/Palästina und Ebirnäri für Manfred Weippert zum 65. Geburtstag*, OBO 186, Freiburg: Universitätsverlag;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2, 69-91.
- Niesiolowski-Spano, L., *Goliath's Legacy. Philistines and Hebrews in Biblical Times*, Wiesbaden: Harrassowitz Verlag, 2016.
- Nissen, H. J., *Geschichte Altvorderasiens*, 2. Aufl., OGG 25, München: Odlenbourg, 2012.
- Noort, E., “Philister”, H. D. Betz, et al., *RGG*, Band 6, 4. Aufl., Tübingen: Mohr Siebeck, 2003, 1282-1285.
- Noth, M., *Geschichte Israels*, 10. Aufl.,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6.
- Noth, M., “Gott, König, Volk im Alten Testament. Eine methodologische Auseinandersetzung mit einer gegenwärtigen Forschungsrichtung”, M. Noth, *Gesammelte Studien zum Alten Testament*, 3. Aufl., TB 6,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66, 188-229.
- Reindl, J., “נִצַּב / נִצְבֵּי”, G. J. Botterweck und H. Ringgen, hrsg., *ThWAT V*, Stuttgart: Kohlhammer, 1986, 555-565.
- Robinson, E., *Biblical Researches in Palestine. Mount Sinai and Arabia Petraea*, vol. 2 (Boston: Crocker & Brewster, 1841), 114-115, accessed 1 Mai 2019 from <https://books.google.co.kr/>.
- Salo, R. S., *Die judäische Königsideologie im Kontext der Nachbarkulturen. Untersuchungen zu den Königspsalmen 2, 18, 20, 21, 45 und 72*, ORA 25, Tübingen: Mohr Siebeck, 2017.

- Schäfer-Lichtenberger, C., *Stadt und Eidgenossenschaft im Alten Testament. Eine Auseinandersetzung mit Max Webers Studie »Das antike Judentum«*, BZAW 156, Berlin: Walter de Gruyter, 1983.
- Schmitt, A., “Assur (Stadt)” (erstellt: Jan. 2017), accessed 15 April 2019 from <https://www.bibelwissenschaft.de/>.
- Schmitt, H. C., *Arbeitsbuch zum Alten Testament. Grundzüge der Geschichte Israels und der alttestamentlichen Schriften*, 2. Aufl.,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7.
- Schunk, K. D., *Benjamin. Untersuchungen zur Entstehung und Geschichte eines israelitischen Stammes*, BZAW 86, Berlin: Walter de Gruyter, 1963.
- Simons, J. J., *The Geographical and Topographical Texts of the Old Testament. A Concise Commentary in XXXII Chapters*, Leiden: Brill, 1959.
- Stoebe, H. J., *Das erste Buch Samuelis*, KAT VIII/1,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1974.
- Stoebe, H. J., “Zur Topographie und Überlieferung der Schlacht von Mikmas, I Sam 13 und 14”, *ThZ* 21 (1965), 269-280.
- Stolz, F., *Das erste und zweite Buch Samuel*, ZBK.AT 9,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1981.
- Talmon, S., “גִּבְעָה / הַר”, G. J. Botterweck und H. Ringgen, hrsg., *ThWAT* II, Stuttgart: Kohlhammer, 1977, 459-483.
- Tsumura, D. T., *The First Book of Samuel*, Grand Rapids: Eerdmans, 2007.
- van der Toorn, K., “Saul and the Rise of Israelite State Religion”, *VT* 43 (1993), 519-542.
- von Soden, W., “Babylonisch-assyrische Religion”, G. Müller, u. a., hrsg., *TRE* 5, Berlin: Walter de Gruyter, 1980, 79-89.

<Abstract>

**A Suggestion for Translation of “גִּבְעַת הָאֱלֹהִים”
in 1 Samuel 10:5a through the Study of Political Relations
between the Kingdom of Saul and the Philistines**

Keungjae Lee
(Mokwon University)

The Philistines are closely connected with the beginning of the kingdom of Saul. For this reason, many scholars have argued that the military threat of the Philistines was one of the most important causes of the birth of Saul’s Kingdom. However, this argument has been criticized for overlooking various complex factors such as the corruption of judicial system, Israel’s internal demands on the kingdom, temporary collapse of the great powers around Israel, and the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of Israel.

First of all, this study argues that the beginning of Saul’s kingdom has nothing to do with the military threat of the Philistines. On the contrary, the birth of Saul’s Kingdom was possible under the permission of the Philistines. This argument is convincing because even after Saul became the king of Israel, the Philistine army was still stationed in places like Geba (1Sa 13:3) and Michmas (1Sa 13:23) which were the territory of the tribe of Benjamin, the strongest support base of the kingdom of Saul.

The key phrase of this study, גִּבְעַת הָאֱלֹהִים (1Sa 10:5), also confirms that the garrison of the Philistines was stationed in that area. The prototype of the noun of גִּבְעַת is גִּבְעָה in the Old Testament, which means ‘hill’ or the City ‘Gibeah’. This means that there are two possible translations of the phrase גִּבְעַת הָאֱלֹהִים, that is ‘the hill of God’ or ‘Gibeah of God’. But most Korean Bible versions translated the phrase as ‘the hill of God’.

However, this study proposes to translate it into ‘Gibeah of God’. ‘Gibeah’ mentioned in this verse signifies the same city of Saul’s hometown Gibeah (1Sa 10:26; 11:4), the first capital of the kingdom of Saul. This expression has the following theological implications: First, Saul’s kingdom was permitted by God. Second, God will protect Gibeah, the capital of the kingdom of Saul. For this reason, this study suggests to translate גִּבְעַת הָאֱלֹהִים mentioned in 1 Samuel 10:5a into ‘Gibeah of God’.